

## 자생적 변혁 이론의 모색: 원효와 마르크스의 종합

이도흠

### 1. 왜 지금 변혁 이론인가?

소련이 해체되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판타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시대에 웬 변혁 이론인가? 누가 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담론을 되풀이 하는가?

우리는 전무후무한 물질적 풍요 속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가 겪는 소외와 불안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점점 더 심화하였고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는 생각도 착각. 세계는 점점 거대한 파놉티콘(panopticon)으로 변하고 있다. 선진국 몇몇을 제외하면 아직 민주주의는 형식뿐이다. 선진국의 국민 대부분도 자유롭다고 하지만 파워 엘리트들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의 물장구요, 몰래 카메라든, 인터넷이든, 제도든 누구인가의 감시에 주눅 들어 스스로 철저히 통제하는 자유일 뿐이다. 소련이 해체된 후 자본주의와 미 제국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제3세계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더욱 노골적인 착취를 일삼고 제3세계의 자원을 약탈하고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전쟁과 학살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계급 갈등과 소외, 억압, 국가

의 통제와 테러리즘, 제국주의의 제3세계 착취와 폭력, 환경 파괴와 공동체의 붕괴 등 산업사회의 모순이 더 첨예해진 가운데 인터넷 제국주의, 가상과 현실의 전도, 상징과 무의식의 조작과 억압, 타자를 점유하려는 욕망의 만연 등 탈산업사회의 모순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인가에 지배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도 이를 잘 느끼지도 못하고 소외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이라면, 그럼에도 파워 엘리트와 미국은 폭력과 억압의 강도를 더 강화하려 한다면 이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참다운 실존이 아닌던가? 나는 내 주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 몸이 좀더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정의의 행하고 있다는 흐뭇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더 나아가 너와 나의 실천으로 미래엔 나의 자식, 형제들, 이웃들이 지금보다는 좀더 건전한 사회에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저항한다.

한 대학의 강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설을 개선하고 유능한 교수를 모셔와 가르치게 하면 아마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온다 하더라도 '00 개론' 등의 낡은 커리큘럼 안에서 가르치라고 하면 그가 과연 무엇을 강의할 수 있을까? 교수가 학교 행정의 50% 정도를 도맡아야 하는 틀 안에서 그는 어떤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까? 영법을, 선수나 수영장의 주인을 바꾼다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풀장을 해체하고 그것을 바다로 잊지 않는 한 풀장 안의 갇힌 해업을 벗어날 길이 없다. 저항도 마찬가지다. 틀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그 어느 대안도 미봉책일 뿐이다. 다시 변혁 이론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론이 현실의 맥락을 벗어나면 구체성을 상실한다. 맑스주의 등 서양의 변혁 이론 가운데 보편성을 갖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과 종합을 이루지 못하면 공리공론에 그칠 뿐

이다. '지금 여기에서' 변혁 이론은 한국의 현실과 만나야 한다. 그러기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한국 현실의 특수성이다. 한국의 상황은 서양과 달리 식민지 사회다. 일제 식민지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종속의 상태에 있다. 자본주의적 모순이 가장 지배적인 모순이기는 하지만 유교적 가부장주의 등 봉건적 모순과 이미지와 상징에 의한 조작 등 탈산업사회의 모순이 중층적으로 겹쳐 있다. 종속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착취와 억압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분단 모순이라는 특수한 모순이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다른 제3세계와 다른 점이다. 종속이론이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을 드러내고 변혁의 지표를 제공하지만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인의 행동 양식의 저류를 형성하는 심성과 집단 무의식은 서양과 남미는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도 다르다. 서양인은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는 중국인과 일본인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뜨거운 것과 시원한 것은 대립적이지만 우리에게서 서로 화쟁(和靜)의 관계다. 뜨거움이 있어서 시원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어서 뜨거움이 있다. 그러니 한국인에게 최고의 맛은 '뜨거운 시원함'이다. 한국의 신화를 보아도 주인공에게 해를 입히는 용과 같은 적대자가 서양의 신화처럼 계속 적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인공의 이상을 지켜주는 호국용이나 호법용으로 변한다. 주와 객, 적과 아의 대립이 없는 것이다. 한국인은 주와 객, 적과 아, 정(情)과 한(恨)을 승화하고 화쟁시켜 하나로 아우른다. 필자가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에서 밝힌 대로 향가와 시조, 탈춤, 판소리 등

우리 고유의 예술은 모두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한국인은 시련을 곧잘 승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도 잘 대응하며 갈등을 쉽게 화해시키고 모든 대립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은근과 끈기, 조화미, 뛰어난 적응력, 손쉬운 화해, 자연과 친화, 강한 공동체적 유대감 등 한국인의 민족성과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급속한 근대화와 대중과 구분되는 교양을 갖춘 공중 계층의 미형성, 군사독재 체제의 지속, 인간과 자연을 경시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왜곡된 시장 체제와 천민자본주의 원리의 확대 재생산, 서구 문화의 침투와 전통문화와 가치의 파괴 등 사회적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철저한 대립에서만 가능한 합리성이나 공공성이 부족하여 비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곳에 정을 개입시켜 공중도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부조리가 심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저항심과 역동성이 유달리 강한 민족이면서도 때로는 쉽게 체념하고 한국사에 단절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개혁이나 혁명이 없는 것도 깊이 파헤치면 이 점과 만난다. 따라서 21세기 오늘 한국 사회의 변혁 이론은 자본주의적 모순, 제3세계적 모순 등 보편성을 갖는 점은 수용하되,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 분단 모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맞추어 종합되어야 한국인을 억압하고 있는 틀을 깨고 진정으로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의 지평을 열 것이다.

## 2 왜 하필 마르크스와 원효의 종합인가?

### 맑스주의가 아직 빛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소련이 해체된 이후, 특히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마르크스적 전망을 말하면 아직도 마르크스냐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

급을 하였다. 물론 21세기의 달라진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맑스주의가 일정 정도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21세기에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착취는 중단되었는가, 오히려 강화되었는가? 국가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가진 자와 유착 관계를 맺고 못 가진 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지금 노동은 진정한 자기실현, 즉 자유의 행위인가, 소외된 노동인가? 인간은 끈끈하게 연대해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인가, 아니면 하나하나가 파편화하고 물화(物化)한 개인인가? 선진국과 약소국은 공존공영을 모색하고 있는가, 미 제국과 선진국이 제3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스템 속에 있는가? 우리의 삶은 자신의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유대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 없이 물화하여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타자의 욕망을 점유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21세기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심화된 부분이 많다. 혹 한계가 있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이 체제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서, 후자의 삶을 전자의 삶으로 바꾸는 비전으로서 맑스주의는 유용하다.

인류 문명사에서 하나의 사상이 올바르다는 신념 하나로 수십,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종교를 제외한다면 맑스주의 이외에 또 있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파들이 권력과 자본과 명예를 가졌기에 그 편에 속한다는 것은 그것을 쉽게 공유함을 의미한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좌파에 선다는 것은 이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권력과 명예와 돈을 버리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섰고 냉대와 박해와 구속, 고문과 죽음이 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맑스주의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였다.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해방을 외친 사상 가운데 어느 것이 맑스주의에 필적할 것인가?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소

외된 사람이 있는 한, 정의의 준거로서, 그들의 복음서로서 마르크스의 저서들은 빛을 발한다.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지 상부구조가 토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나 정보화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이버 세계에서 수천, 수만 번 남북 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실제로 남북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 삶에 변화는 없다. 현실이 현실 자체가 아니라 언어와 텍스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지되고 전달되고 해석되지만 언어와 텍스트가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가상과 실제, 원본과 모사, 이미지와 현실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서 이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체적 현실을 재구하는 것이다. 대중문화든, 가상 세계든, 지배자들의 담론이든, 이미지와 상징이 우리의 삶과 현실을 조작하고 있다면 이들의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물질과 현실을 돌려놓는 지표로서 맑스주의는 필수적이다. 문학 이론에서 문화 이론, 대중문화론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맑스주의적 지평이 없이는 공리공론으로 전락하는 것도, 맑스주의가 어떤 이론도 해체할 수 있는 ‘절대 이론’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높은 세계에서는 세계는 하나이나, 우리 일상의 차원에서는 세계는 밤과 낮, 주와 객, 남과 여, 이데아와 그림자 등 둘이다. 원래 하나인 것이 둘로 나뉘어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이루기에, 대상을 구분하면서도 통합하고 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자기를 반영하면서 대상의 내재적 모순을 지양하고 총체화한 세계를 보여주는 과학이기에 양자의 변증법적 종합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립과 갈등은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현실과 대비시켜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밝혀주는 유물론은 마땅하다. 그러기에 유물론적 변증법은 원리 가운데 원리다.

전 시대에 비하여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자유도 더 확대되었지만 부자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우리들의 삶은 아직 불완전하고 불행하다. 아니 소외와 불안, 위기의식은 21세기 인류 공통의 문제다. 우리들의 삶이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면, 유토피아는 현재를 비추어주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다. 더구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길어 올린 구체적인 것이기에 그 빛은 힘을 갖는다.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는 구체적 유토피아로서 맑스주의는 아직 인류의 빛이다.

### 씨는 죽어 열매를 남긴다

그럼에도 21세기의 달라진 현실을 분석하는 데 맑스주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이 부분을 메워 줄 수 있는 것이 원효의 화쟁사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홍수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댐을 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을 터주는 것이다. 서구 사회는 인간과 자연을 이항 대립으로 나누고 인간에게 우월권을 주었기에 전자의 방식을 택하였다. 댐을 쌓듯 인간 주체가 자연에 도전하여 자연을 개발하고 착취하는 것을 문명이라 하였고 이것으로 그들은 17세기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하였다. 맑스주의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댐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물을 썩게 하고 결국 거기에 갇들여 사는 수많은 생물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변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항 대립(binary opposition)적 사유에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폭력적 계층 질서가 존재한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이성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의 형이상학은 정신/육체, 이성/광기, 주관/객관, 내면/외면, 본질/현상, 현존/표상, 진리/허위, 기의/기표, 확정/불확정, 말/글, 인간/자연, 남성/여성 등 이분법에 바탕을 둔 야만

적 사유이자 전자에 우월성을 부여한 폭력적인 서열제도며, 처음과 마지막에 “중심적 현존”을 가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이항 대립에 바탕을 둔 서구의 패러다임은 전 지구 차원의 환경 위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현대성의 위기의 동인이었다.

땀을 흘리는 것이 근대적, 서구적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면, 물 길을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화쟁의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화쟁의 패러다임을 가졌던 고운 최치원은 홍수를 막기 위하여 물길을 트고 나무를 심었다. 지금도 지리산 자락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동에 가면 낙엽활엽수림보존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제154호)로 지정된 상림(上林)이란 숲이 있다. 1,100년 전 신라 진성왕(887년~896년 재위) 때 이곳의 태수인 최치원은 홍수로 특 하면 넘치는 위천의 물길을 돌리고 이 숲을 조성하였다. 하림(下林)은 사라져버렸으나 지금도 폭 200~300미터, 길이 2킬로미터에 걸쳐 200년 된 갈참나무를 비롯하여 114종, 2만여 그루의 활엽수목이 원시림과 같은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

땀은 물을 썩게 하고 생명들을 죽이지만 숲은 빗물을 품었다가 정화한 다음 서서히 내보낸다. 사람이 걸어 다녀 다져진 토양은 시간당 10밀리미터의 비를 품는 반면에 잘 가꾼 숲은 시간당 200밀리미터 이상을 가둔다. 최치원은 왜 활엽수를 심었을까? 임업연구원이 광릉수목원에서 실험하였더니 활엽수 천연림은 사방공사를 한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인 숲에 비하여 우기에는 헥타르당 28.4톤의 물을 머금고 반대로 건기에는 2.5톤의 물을 더 흘려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산소를 머금고 이온 작용으로 자연 정화를 하며 온갖 생명들을 품는다.

이런 화쟁의 불일불이 원리에 대하여 원효는 다음과 같이 씨와 열매의 비유로 쉽게 설명한다.

“열매와 씨가 하나가 아니니 그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다르지도 않으니 씨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또 씨와 열매는 단절된 것도 아니니 열매가 이어져서 씨가 생기기 때문이요, 그러나 늘 같음도 아니니 열매가 생기면 씨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씨는 열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열매일 때는 씨가 없기 때문이요, 열매는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씨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생(生)하는 것이 아니요, 늘 같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멸하지 않으므로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생하지 않으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번을 멀리 떠났으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 가운데 해당하지 않으므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할 수 없다.”

- 원효,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무생행품』(無生行品)

화쟁의 일곱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인 불일불이는 차이를 통하여 공존을 모색하자는 사유 체계다. 씨는 스스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으나 열매와의 “차이”를 통하여 의미를 갖는다. 씨와 열매는 별개의 사물이므로 하나가 아니다[不二]. 국광 씨에서는 국광 사과를 맺고 홍옥 씨에서는 홍옥 사과가 나오듯, 씨의 유전자가 열매의 거의 모든 성질을 결정하고 열매는 또 자신의 유전자를 씨에 남기니 양자가 둘도 아니다[不二]. 씨는 열매 없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공(空)하고 열매 또한 씨 없이 존재하지 못하므로 이 또한 공하다. 그러나 씨가 죽어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자라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열매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씨를 낸다. 씨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면 씨는 썩어 없어지지만 씨가 자신을 공하다고 하여 자신을 흙에 던지면 그것은 싹과 잎과 열매로 변한다. 공(空)이 생멸변화(生滅變化)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세계는 홀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지만 자신을 공하다고 하여 타자

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씨는 스스로 공하나 썩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것이 없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니 이것이 있다. 또 씨가 있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으니 씨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 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있다. 열매일 때는 씨가 없으므로 씨는 열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씨일 때는 열매가 없으니 열매는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으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늘 같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으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멸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없고 나지 않으므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중부정을 통해 공한 것이 공한 것이기에[空空] 오히려 존재를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쟁은 우열이 아니라 차이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투쟁과 모순이 아니라 자신을 소멸시켜 타자를 이루게 하는 상생의 사유 체계다. 서구의 이항 대립의 철학이 댐을 쌓아 물과 생명을 죽이는 원리를 이룬다면, 화쟁의 불일불이는 그 댐을 부수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흐르며 물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은 물을 흐르게 하는 원리다. 화쟁의 불일불이는 이항 대립적 사고, 우열과 동일성을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데리다의 철학과 통하나 데리다는 해체는 하되 대안은 약한데 화쟁은 차이와 상생을 결합한 사유 체계다.

사랑이 깊고도 깊으면 얼굴마저 닳는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금실이 좋은 부부를 보면 부부라기보다 오누이 같다. 고등어 소리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이가 상대방이 맛있다고 하니 그 비린내가 생선의 독특한 맛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풋사랑하는 이들은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만, 참사랑하는 이들은 내가 그리로 물처럼 흘러 그를 이루려 한다. 내 방식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이 참사랑이다.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사랑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얼굴에서 신의 모습을 본다 했다. 그러니 왜 얼굴인들 닮지 않았는가? 그리 나를 소멸시켜 상대방을 이루어 하는 것이 참사랑이요 화쟁의 불일불이다.

미봉책의 대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지금의 문명을 송두리째 부정 한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 씨와 열매처럼 자신을 소멸시켜 상대방을 이루어 한다면, 그 원리에 따라 사회를 재편하고 가치관을 혁신하고 모든 생산을 차츰차츰 이 원리에 따라 해낸다면 인간은 함양의 상림처럼 타자를 해하지 않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양의 대안을 폐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동양사상의 가치를 알면서도 몇몇 사람들의 “동양 사상이 대안이다”라는 주장에서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보편성과 오늘의 현실 맥락을 배제한’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공리공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동양의 전제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중세의 농업 사회로 퇴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21세기의 현실, 우리가 다지고 있는 이 땅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극한 철학이라 하더라도 (현재적) 의미는 없다. 오늘날의 복잡해진 사회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현들의 현학적이고 신비적인 은유 놀이로 그칠 뿐이다.

상림을 조성하여 1천여 년 간 홍수를 막는다지만 당장 올해 일어날 홍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운 선생은 숲을 조성하기 전에 독을 쌓았다. 원효는 세계가 하나임을 알면서도 보통 사람의 차원에서는 밤과 낮, 현상과 본질 등 둘로 봄을 인정하고 둘의 사유를 통하여 하나로 돌아갈 것을 천명하였다. 불일불이는 21세기의 사회의 현실이란 맥락에서, 이 땅

위에서 호흡하고 있는 우리 몸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불일불이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를 하나로 아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대안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선 맑스주의가 대안이다. 독(가진 자의 착취와 억압, 계급 갈등, 노동과 인간의 소외 등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해선 맑스주의로 비판을 하고 대안의 실천을 행하는 일)을 쌓은 뒤에 숲(불일불이의 패러다임에 따라 양자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건립하는 일)을 조성하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와 자본가가 다같이 평등하고 존엄하며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자 갖은 실천을 하는 사회를 건설하지는 것이다.

### 3. 자본주의비판과 대안의 사회

#### 자본주의 사회는 죽음의 욕망이 꿈틀대는 거대한 쇼핑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토대가 변화하자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농촌 공동체는 급속히 해체되었다. 공장은 농지를 야금야금 삼켜버렸고 농민들을 노동자로 전환시켰다. 도시화 또한 산업화와 함께 급속히 단행되었다. 2,000년 현재 세계 인류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29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2007년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생활자가 농촌 생활자를 초월할 것이며 2030년에는 그 60%인 49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2000년 12월 현재 한국에서 농촌에 사는 사람은 10%도 넘지 않는다(8.7%). 젊은이들은 돈 벌러, 공부하러, 출세하러 도시로 가버리고 노인들만 남아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며 밭을 일구고 있다. 도시로 온 90% 사람들이 일터에선 구더기처럼 오글거리다가도 샴터로 돌아오면 콘크리트 상자에 서로를 가둔 채 고독을 되씹고 있다.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어 몇 달이 지나 썩는 냄새가 진동하자 발견되는 일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돈 몇 푼에 가족을 살해하는 일은 뉴스로 보도되기는 하나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자본주의가 이들과 결합하면서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하였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를 분리하기에, 사람들은 대지로부터, 그 대지에 터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로부터 소외된다. 생산자들은 노동력을 판매하는 자기에 인간은 물론 노동 자체가 상품화한다.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노동하는 대상으로부터, 함께 노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한다. 왜, 어떤 목적으로 생산을 하는 지 거의 모른 채 노동을 하고 자신의 생산물을 익명의 상품으로 내놓는다. 20승을 하는 투수에게 2,000만 달러를 준다면 10승을 하는 선수에게 700만 달러 정도를 주고자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자는 땀땀거리며 살고, 없는 자들은 빈곤과 기아에서 허덕인다.

기회가 균등하다면 그리 커다란 불만이 없다. 능력이 없는데도 아버지를 잘 두어서 누구는 호화 별장에 요트를 가지고 평생을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환락 속에서 보내고, 누구는 뛰어난 능력이 있으나 학교 갈 돈이 없어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 고통에 찬 삶을 마지못해 연명한다. 그래도 모두에게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면 한이 맺히지는 않는다. 자신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손을 휘두르며 달리는 버릇이 있음을 간파하고 “손을 휘두르며 달리면 반칙이다”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처럼, 먼저 권력을 잡은 이들이 계속 지배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짜 맞추었다. 이 틀 속에서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의 잉여노동을 마음껏 착취한다. 그리고도 불만을 가지지 못하도록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문화와 예술을 동원하여 일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그들의 저항

의식을 서서히 거세한다. 학교를 통하여 지배층의 먹이를 잘 물어다 주는 방법을 가르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미덕에 대해 어릴 때부터 세뇌시킨다. 미디어는 그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징과 이미지를 무차별로 만들어 전파한다.

자본주의는 잉여노동을 착취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사회기에 과잉생산을 추구하고 과소비를 조장한다. 모든 부문에서 교환 가치를 더 우선시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다. 생산과정에서는 포드 시스템을 동원하고 연봉, 승진 따위로 적당한 보상을 하여 노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생산성을 높인다. 소비자들에겐 구조적 통찰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을 의지와 능력일랑 버리게 하고 오로지 상품광고와 유행에 의존하여 미친 듯 상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노동자들 스스로도 이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적 인간이 된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 이 체제 속에서 욕망이란 이미 점유하고 있는 타자의 권력과 자본과 명예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 구조 속의 인간들은 나와 타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자를 토끼와 거북이 우화식으로 밀어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더 강한 권력과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이웃을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으로 삼는 곳에서 어찌 공동체가 자리하리? 자본주의 사회 전체가, 겉 모습은 화려하지만 정글 법칙대로 생존이 결정되고, 저 밑에서는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욕망이 꿈틀대는 거대한 쇼핑센터로 전락하였다.

### **정의란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누구보다 첨예하게 인식한 마르크스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동체를 내세운다. 그가 꿈을 꾸는 세상은 피의

혁명과 숙청을 통한 공산주의 건설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그룬트리세』에서 “정의란 나 아닌 다른 타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공산당선언』에선 적극적 자유는 사회적 개인들의 자기 발전이므로 각 개인이 타자를 더 많이 향상시켜 줄수록 그들 각자의 발전의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하며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선언한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이를 좀더 행복하게, 자유롭게 하려고 서로서로 갖은 실천을 다하는 사회를 꿈꾸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없이 모두가 모여 함께할 일을 정하고 일하는 자가 땅과 공장을 가진다. 이곳에서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된 노동이 아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이자 자기 앞의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방편이다. 더 나아가 나의 노동을 통하여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이타적(利他的)인 동시에 대자적(對自的)이고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각자의 능력을 따름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름으로”라는 그가 제시한 원칙에 나타난 대로 사람들은 우열이 아니라 차이에 따라 존재 의의를 가지며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분배한다. 타인을 자유롭게 하여 나는 더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워진 나로 하여 타인은 더욱 자유롭게 된다.

인간은 이미 “사회 관계 속에 있는 개인”(individuals in social relation)이다. 나는 수많은 타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니 나의 자유는 이들과 함께 공유할 때 완성된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는 나 아닌 다른 타인을 구속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때 완성된다. 빈곤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 양식을 줄 때, 나를 위한 삼질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한 이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루에 500평의 밭을 갈던 이가 600평의 밭을 갈고자 할 때 나 자신은 진정 자유로운 것이다. 바로 이 지

점에서 자유는 정의와 결합한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선과 부합한다. 바로 이 때문에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영광과 명예와 환락의 길을 버리고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삶을 구원하려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노동자들은 혼신을 다해 망치질을 하여 기적적인 생산 증대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모두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한 사람이 열 걸음 걷기보다 열 사람이 더불어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다시 굶어 죽는 인민이 생겼고 소련은 미국의 식량 지원이 없이는 국가 자체가 위기에 놓일 지경이 되었다. 집단 농장의 배추는 썩어가는데 개인 텃밭의 배추는 싱싱하였다.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휴지가 없을 정도로, 장작이 없어 마르크스의 저서를 빨감으로 삼을 정도로 물자가 모자라고, 남아도 유통이 되지 않아 많은 인민들이 고통에 찬 생활을 하였다. 굶주림을 면하려 다른 나라에 가서 몸을 파는 인터걸까지 생겼다. 예술은 혁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언론은 새로운 지배층의 나팔수가 되었다.

왜 사회주의는 실패하였는가? 먼저 이야기할 것은 사회주의의 실패가 맑스주의나 레닌주의의 실패라기보다 맑스주의를 왜곡한 스탈린주의의 실패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역기능을 이야기할 때 획일화, 전체주의화, 통제와 억압 심화, 관료화, 국가의 비대화와 정당성 상실을 꼽는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공동체적인 생산 및 분배 활동 내에서, 목적과 절차의 공동 결정은 공동체의 각 성원이 다른 성원의 목적, 필요, 개별적 차이점들을 감안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보았다. 레닌은 소수라 할지라도 반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진리에 수렴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에 포위된 상황에서 혁명을 완수하려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며 소련

을 전체주의화하였다. 당은 더 이상 인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었다. 인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관료 기구로 바뀌었다. 비밀경찰은 인민 모두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국가기구, 하지만 인민의 일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유령이 되었다. 소련 전체가 ‘수용소군도’로 전락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인민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하였고 인간의 존엄성은 박탈되었다. 지하신문, 사미즈다트(samizdat : 검열을 피해 술제니친 등이 스스로 발행하여 몰래 돌린 출판물)를 통해서만 진실을 접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의 획일성은 개인의 욕망과 창조성, 문화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억압하였다. 자연스레 사회와 문화는 퇴보를 하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다시 굶주리는 사람이 생겨났다.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노멘클라투라라는 신종 계급이 등장하였다. 그러기에 사회주의를 개혁하자는 페레스트로이카 철학을 제시한 렉토르스키나 이를 구현하고자 한 소련의 초대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다같이 “레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다.

과연 스탈린만이 사회주의의 실패의 짐을 지어야 할까? 사회주의자들은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절로 조절되는 시장을 무시하였다. 지금 용량의 수만 배 되는 슈퍼컴퓨터가 있더라도 당이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한 곳에서는 철근이 산처럼 쌓여 녹이 슬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철근이 없어서 다리를 놓지 못하고 집을 짓지 못하여 많은 인민들이 고통에 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의 풍속도가 되었다.

패러다임 자체가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제 경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사회주의에서도 환경 파괴는 극심하였다. 노동을 자연의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여 자유를 쟁취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듯 맑스주의 또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중

양집권적인 통제경제를 실시하였고 실제로는 인민을 소외시킨 계획경제였기에 목표 달성과 혁명 원수의 구호 속에 누구도 자연 파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악이 아니라 창조의 원동력임을 간과한 데 있다. 왜 개인 텃밭의 배추는 싱싱할까? 그것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행위, 사회의 공동선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사상 교육을 시켜야 할까, 아니면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자극을 받도록 인민재판을 해야 할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성공 비결은 개인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만큼 철저히 보상해 주는 데 있다.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연구에만 몰두하여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 전체의 몫으로 한다면 과연 몇 명의 과학자가 혼신을 다해 연구에 몰두할까?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은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워 공동체를 해치는 악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없애 버려야 할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창조의 원동력이었다. 자신의 연봉이 늘어나고, 자신의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기에,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혜택이 돌아가기에 피땀을 흘리며 일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자본주의 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체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심의 동물이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좀더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라도 자기의 것을 채우고자 욕심을 부린다. 물론 인류 모두가 '나'를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중 모두를 깨닫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까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사회를 방치해야 할까? 모든 이들이

깨달음에 이르지 않는 한, 개인의 이익과 자유는 집단의 공동선과 마주친다. 그럼 모든 인민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은 무엇일까?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이 절충에 불과함은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실험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원효의 사상에 그 씨앗이 있을까?

#### 4.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

#####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큰 것과 같다

상입(相入)이라는 것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체 세계가 한 티끌 속에 들어가고 한 티끌이 일체 세계에 들어간다. 삼세 제집이 한 찰나에 들어가고 한 찰나가 삼세 제집에 들어간다. 크고 작음, 느리고 빠름이 서로 들어간다.……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지극히 크다는 것은 이른바 밖이 없는 것이니, 밖이 있다면 지극히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다는 것 또한 그와 같아서 이른바 안이 없는 것이니 설사 안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밖이 없는 큼은 이른바 크나큰 허공이며 안이 없는 작음은 이른바 미미한 티끌이다. 안이 없기 때문에 또한 밖도 없으니 밖과 안은 반드시 서로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큰 것과 같다는 것이다. 태허는 밖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안도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지극히 큰 것은 지극히 작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큰 것에는 작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크고 작음이 같은 양임을 안다면 모든 크고 작음에 막는 것과 가리는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불가사의한 해탈이다.

- 표원(表員)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에 인용된

원효의 『화엄경』 「십주품」(十住品)에 대한 주석

혹자는 험벗고 굶주리는 장애인 노인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고 반문을 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빨리 없어지는 것이

남은 이들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들도 있다. 자신이 좌파라고 자부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등 소수자의 권익 보호 운동으로 뛰어 들었다. 이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들의 복음서인 마르크스의 저서들이 노동자 계급의 해방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아직 중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제국주의 이론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노동자 계급은 물론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모두의 공존과 해방을 모색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원효에 있을까?

바이오스피어. 1991년 미국은 애리조나 주 오라클에 유리로 밀폐시킨 가상 지구 바이오스피어2(Biosphere II)를 14만 평방 피트에 이르는 너른 땅에 지었다. 흙과 물, 공기, 들과 언덕을 갖추고 동, 식물 또한 살게 하였다. 빛만 빼놓고는, 산소도 바람도, 꽃가루받이도 모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8명이 이 작은 지구에 들어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채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다. 그러나 18개월 만에 바이오스피어2는 치명적인 불균형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산소 농도가 처음 21%에서 14%로 떨어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었다. 대신 가상 지구에 가득 차게 된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인해 잡초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랐다. 바퀴벌레와 개미 같은 몇몇 곤충들만 번창하게 되었고, 25종의 작은 동물들 가운데 19종이 전멸하고 말았다.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대신해 주던 곤충들이 죽자 식물들도 번식할 수 없게 되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모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건물의 콘크리트 벽이 산소를 흡수하고는 방출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한 것은 농사용 토양에 함유된 박테리아가 대기 중의 산소를 많이 소비하였던 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였다.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하찮은 박테리아가 대기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앞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보다

작은 박테리아 한 마리도 다른 모든 생명의 조화와 균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가 인드라마처럼 인연의 비늘로 철저히 겹쳐 있는데 인간 홀로 존재한다 할 수도 없거니와 홀로 무엇이라 내세울 수도 없으며, 홀로 삶을 영위할 수는 더 더욱 없는 것이다. 나는 없다. 그러나 네가 있어서 나는 있다. 지구상의 온 생명은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다. 인연의 사슬이 깊어 수천 억 년 가운데 같은 시대에 수조 개의 별 가운데 같은 별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 생명체들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온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한 나라, 한 사람은 전 세계의 인류와 인드라마의 구슬처럼 서로가 거울이고 그림자가 되어 서로 비추는 것이다.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한 한 부분이듯 한 사람, 한 나라는 전 세계를 포괄한 한 부분이다. 약소국과 큰 나라 미국, 노동자와 자본가, 낮은 자나 높은 자, 가난한 자나 가난하지 않은 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똑같이 평등한 존재다.

### **같다는 것은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 것이다**

“같다는 것은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 것이요, 다르다는 것은 같음에서 다름을 밝힌 것이다. 같음에서 다름을 밝힌다 하지만 그것은 같음을 나누어 다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다름에서 같음을 분별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을 녹여 없애고 같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같음은 다름을 없애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같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름은 같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다르다고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다고 말할 수 있고 같다고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는 둘도 없고 별(別)도 없는 것이다…….”

- 원효 「금강삼매경론」, 「무생행품」

20세기는 동일성의 사유, 배제의 담론이 지배한 역사였다. 폴 포트(Pol Pot)를 만난 이들은 그가 아주 온화하고 지적이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겸손하고 과묵하며 따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캄보디아 인구의 1/4에 이르는 170만 명을 킬링필드로 보냈을까? 그의 뜻만큼은 숭고하였다. 캄보디아 농촌을 보고서 그는 캄보디아 전체를 농촌처럼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며 순박한 인심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도시와 시장, 학교를 없애 버리고 안경을 낀 사람도 ‘도시스러움’을 갖고 있다고 처형할 정도로 ‘도시적인 것’, ‘부르주아적인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서 절대 순수한 농촌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나치즘의 유대인 대학살과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스탈린주의와 수용소군도, 미군의 밀라이 대학살, 유고의 인종 청소,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테러와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폭격 모두 나라는 동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너는 우리편이 아니다”라고 한 동일성의 사유, 배제의 담론의 소산이다.

상품은 물질이지만 물질 그 자체만이 아니라 교환가치 체계의 산물로 본 것처럼, 마르크스는 사물을 실제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사유를 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동일성의 사유를 벗어나 차이의 사유를 할 때 동일성의 오류, 배제의 담론이 범한 폭력을 일소할 것이다.

외국인들은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에 대해 뭐라 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는 변동어이(辨同於異)의 화쟁(和諍)의 사유가 우리 민족의 사유구조이자 문화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뜨거움은 홀로 존재하는 것도 홀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찬 것이 있기에 그와 차이를 통하여 뜨거움을 분별한 것이다. 차다는 것 또한 홀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 있기에 차다라는 의미를 갖는

다. 그리고 둘 사이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뜨거운 것은 찬 것을 없애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찬 것은 뜨거운 것을 증발시켜 버리고 얻어내는 것은 더욱 아니다. 뜨거운 것이 있어서 찬 것이 드러나고 찬 것이 있어서 뜨거운 것을 느끼기에 가장 시원한 맛은 “뜨거운 시원함”이다.

현전(現前)과 부재(不在)의 관계 또한 대립적이 아니라 차이적이다. 누구인가가 몹시 그리운 것을 두고 한국인은 “눈에 밝힌다”라고 표현한다. ‘눈에 밝힘’은 어떤 대상이 없어서 몹시도 그리워 환상으로 만들어진 대상이 구체성을 띠고 나타났다가 눈에 밝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반복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눈에 밝힘’은, 일심(一心)이 있는 것이면서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면서 보이는 것이다. 없어서 그리우면 눈에 선한 법이다. 부재가 눈앞에 현전을 드러내고 눈에 선해지는 현전은 더욱 부재를 실감케 한다. 이렇게 양자가 불일불이의 관계로 만나면 눈에 밝히게 된다. 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형체가 없는 것인데 “밝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밝힌다는 것은 구체적 사물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추상이 쌓이고 쌓여 눈에 밝힐 정도로 구체로 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밝히는 순간 구체는 사라지고 추상-이미지만 남는다. 이렇게 부재와 현전, 만남과 헤어짐, 추상과 구체가 하나로 아우러진다. 추상의 한 관념에 구체적 형상을 입혀 추상이 헛된 망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념이 왜곡을 낳는 것을 막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드러내면서도 형이상학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깊이를 해치지 않는다.

상대방의 눈동자에 맺힌 내 모습을 눈부처라 한다. 내 모습 속에 숨어 있는 부처가 상대방의 눈동자를 거울삼아 비추어진 것이다. 그 눈부처를 바라볼 때 상대방과 나의 구분이 사라진다. 아무리 적이라 해도 눈부

처를 담고 있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이렇게 변동어의 화쟁은 나와 남, 적과 아의 구분을 넘어서서 타자가 곧 나임을, 동일성이라고 믿은 것이 실은 다름과 타자임을 자각하는 패러다임이다.

### 하나도 아니고 둘을 지키지도 않는다

우리의 오류,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은 모두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A or not-A’의 논리에서 비롯된다.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래 ‘A or not-A’의 논리를 추구하였다. A가 아니면 나머지는 A가 아닌 것이어야 한다. 동일한 사물이 동일한 사물과 동시에 동일한 점에 속하면서 또한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A이면서 A가 아니기도 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모순율이다. 서구의 거의 모든 철학과 예술은 이 모순율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맑스주의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변증법적 종합을 피하기는 하였지만 이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화쟁의 논리는 퍼지식의 논리로 이분법적 모순율을 거부한다. ‘A and not-A’의 논리, 곧 둘이 아니면서도 하나를 고수하지도 않으며[無二而不守一], 따르는 동시에 따르지 않는[順而不順] 논리가 화쟁의 논리다.

‘따라서 하거나 따라서 하지 않고도 말한다’는 것은, 만일 마음에 직접 따라서 설법하면 샅된 집착을 움직일 수 없으며, 또 만일 마음에 따르지 않고 오직 설법만 하면 바른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얻어 본래의 샅된 집착을 버리게 하려면, 혹은 따라서 설하고 혹은 따르지 않고 설법하라는 것이다. 또 만일 직접 도리(道理)만 따라서 설법하면 바른 믿음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그 사람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리에 따르지 않고 설법한다면 어

찌 올바른 이해를 낳으리요. 그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까닭이다. 올바른 믿음과 이해를 낳으려면 혹은 따라서 하고 혹은 따르지 않으면서 설법해야 하는 것이다.

- 원효 『금강삼매경론』, 「입실제품」(入實際品)



왼쪽에 나무에서 갓 따온 사과가 있다. 이를 베어 먹는다. 한 입에서부터 두 입, 세 입 베어 먹기 시작하여 다 먹고 씨를 뱉었다. 왼쪽 끝의 사과를 존재한다고 한다. 오른쪽 끝의 사과를 부재(不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존재한다고 생각한 왼쪽 끝의 사과는 100% 온전한 사과인가? 과수원에서 바로 딴 사과라 하더라도 나무에서 따 가지고 오는 사이에 점점 닳고 있다. 다 먹고 씨를 뱉었을 때 사과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우리는 과육을 먹었을 뿐이다. 씨와 껍질은 남아 있다. 우리는 사과를 손에 쥘 경우에 사과가 있다고 말하고 다 먹어버린 후에는 사과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과는 100%에서 0% '사이' 존재한다. 우리는 0과 1에 대하여 말하지만 진리는 그사이에 있다.

태양이 작열하는 대낮 12시쯤 해변을 거닐고 있는 그 순간은 낮인가, 밤인가? 통상 밝으면 낮, 어두우면 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낮은 12시에서 0.00001초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찰나에 스쳐간다. 정오에서 0.001초라도 지났으면 벌써 그만큼 밤이 진행된 것이며, 반대로 0.001초라도 모자랐다면 그만큼 낮이 덜 진행된 것이다. 밤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느 것을 분별하여 둘로 나누는 것은 두 극단을 취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12시가 막 지난 해변의 시간은 낮에서 밤으로 가는 과정이다.

화쟁은 주와 객, 주체와 타자를 대립시키지도 분별시키지도 않는다.

양자를 융합하되 하나로 만들지도 않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간도 아니다. 주와 객, 주체와 타자가 서로를 비취주어 서로를 드러내므로 스스로의 본질은 없고 다른 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진리란 것은 진리가 아닌 것과 차이를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와 차이를 통하여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밤과 낮을 실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듯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가 누구를 서양인이라 하고 동양인이라 할 것인가? 누가 누구를 기독교도라 하고 이슬람교도라고, 자본가라고 노동자라고 칼로 자를 수 있을 것인가? 서양인에게도 동양인의 유전자, 동양인의 사고와 문화 양식이 깃들여 있고 이 점은 동양인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에도 이슬람의 교리가 스며 있고 이슬람교에도 기독교 교리가 스며 있다. 자본가도 일하는 순간 노동자며 노동자도 남을 부려 노동을 착취하는 순간 자본가다. 모든 인류는 서양인인 동시에 동양인이며 기독교도인 동시에 이슬람교도며 자본가인 동시에 노동자다.

나와 남, 이슬람과 기독교, 적과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이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것, 그리하여 내가 전혀 모르던 곳의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며 내가 정보를 올린 것이 익명의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정보의 바다를 향해하여 정보를 모아 인류를 위하여 새로운 무엇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이리라.

### **연꽃은 저 높은 산록에서 피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이상대로 건설된 공동체라 하더라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개인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타자와 완벽한 공존을 도모하기 어렵다. 타자의 것들을 점유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적

혁명이 성공한 사회에서도 인민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였다. 투철한 혁명가가 정권을 잡은 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독재를 일삼은 예는 비일비재하였으며, 그 사회에서도 혁명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엘리트와 대중의 차별은 여전하였다. 좌파 활동가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폭행하고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 또한 흔히 있는 일이다. 개인의 영성 혁명의 이름으로, 일상적 파시즘을 명분으로 사회의 혁명, 거시적 파시즘에 대한 저항과 실천을 유보함은, 알게 모르게 부르주아지의 전략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자각과 내적 혁명이 따르지 않으면 혁명은 완성될 수 없거나 변질될 수 있다.

“공상(空相)이 또한 공하다”라 한 것은 ‘공상’이 바로 속제(俗諦)를 버리고 진제(眞諦)의 평등한 상을 나타낸 것이요, “또한 공하다”란 곧 진제를 융합하여 속제로 삼은 “공공(空空)”의 의미니, 순금을 녹여 장엄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 …… “또한 공하다”라 한 것은 이 속제를 다시 융합하여 진제로 삼은 것이니, 이것은 장엄구를 녹여 다시 금덩이로 환원시키는 것과 같다. …… 또 처음의 문(門)에서 “속제를 버려서 나타낸 진제”와 제2의 공 가운데 ‘속제를 융합하여 나타낸 진제’인 이 2문의 진제는 오직 하나요 둘이 아니며, 진제의 오직 한 가지로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융합하여 나타낸 진제는 오직 하나다.

- 원효 『금강삼매경론』, 『입실제품』

인간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불타는 욕망, 갈애(渴愛)에 있다고 한 것은 인간 삶의 본질을 통찰한 붓다의 말씀이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욕망이란 타인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욕망할수록 자아는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를 채우려는 것은 타인의 돈과 권력, 향락을 빼앗는 것을 뜻한다. 나에게 집착하면서, 부자는 가난

한 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고 있고(1960년대에 미국 대기업 지원과 최고 경영자 사이의 연봉 차이는 1대 41이었으나 1999년에는 1대 457로 벌어졌다. 1997년 6월 현재 인류 가운데 13억이 하루에 1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 10대 갑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1,330억 달러로 최빈국 총수입의 1.5배에 이른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였고,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였으며, 서양은 동양을 착취하였다. 대신 인간은 극심한 소외감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욕망과 함께 버려야 할 것은 나에게 대한 집착이다. 석가모니는 『금강경』에서 “만약 보살이 아상(我相)이나 인상(人相)이나 중생상(衆生相)이나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구원의 주체인 나나 대상인 타인이 있다는 생각, 중생이든 다른 존재든 이보다 위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보살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의 대상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그들보다 높이 깨달아서, 그들보다 시간이 많아서, 그들보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다. 보살행은 내가 그보다 높이 서서 나의 불성(佛性)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 유리창만 닦으면 하늘이 다시 청정함을 드러내듯, 무명(無明)만 없애면 본래 청정한 중생 속의 불성이 스스로 드러나니 그 면지만 사알짝 닦아내면 된다. 그러니 중생과 깨달은 자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화쟁의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여 일심(一心)의 본원(本源)으로 돌아가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歸一心之源 饒益衆生). 원효는 이를 위하여 진과 속이 하나가 아니라는 진속불이(眞俗不二)를 외친다. 우리 미천한 인간들이 속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여야 완성된 인격[眞]에 이를 수 있고, 또 이에 이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이끌어야 비로소 깨달음이 완성될 수 있다.

높은 깨달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열반에 머물지 않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을 구제해야 비로소 깨달음의 완성에 이른다. 원효는 열반에 머물르지 않는다는 부주열반(不住涅槃)을 추구하였고 이를 몸소 실천하고자 중생 속으로 내려갔다. 티베트의 승려는 수천 리 길을 맨발로 오체투지를 하며 걷고 영하 삼, 사십 도의 찬바람이 살을 에는 수천 미터 설산에서 맨몸으로 잠을 잔다. 이렇듯 범인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행을 하며 중생을 구원하다 그는 결국 그 업보로 궁극적 존재인 부처가 되어 해탈을 이룬다. 그러나 가장 존귀한 존재인 부처가 되었어도 그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다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다. 원효의 표현대로 금을 녹여 장엄구로 만들듯 진제(眞諦)를 녹여 속제(俗諦)를 만들며, 다시 장엄구를 녹여 금덩이로 환원시키듯 속제를 녹여 진제로 만든다. 금덩이를 녹여 금반지를 만들고 금반지를 녹여 다시 금덩이를 만들지만 둘은 모두 금으로 하나다. 그러니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圓成實性], 부처와 중생,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엘리트와 대중이 둘이 아니요 하나다.

연꽃은 저 높고 아름다운 산록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왜 저 아름다운 연꽃이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높은 언덕에 피지 않고 냄새나는 수렁의 진흙 속에서 피어날까? 왜 가장 더러운 진흙 속에서 줄기를 뻗어 청정한 하늘 위로 가장 아름다운 꽃 송아리를 틔울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이 저 높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고 반야의 바다를 완전히 갖추어도 열반의 성에 머물르지 않고 무량한 겁 동안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고 온 중생을 구제한 뒤에 비로소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중생들을 열반의 언덕으로, 민중들을 해방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할 때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은 그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로 가 그를 완성시키고 그를 통해 다시 나를 완성하는 행위다. 조금만 숲 속으로 발을 옮겨도 연꽃보다 예쁘게 생긴 꽃은 허다하다. 그러나 진흙 수렁 속에서 피어나기에 연꽃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

### 오래된 미래, 라다크

그럼 진속불이를 통한 요익중생(饑益衆生)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까? 마르크스의 사상에 공과 연기의 사상을 종합한다면 모든 인민이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타자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리라. 지구상에 이런 곳이 실재하니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불교 공동체, 라다크다. 히말라야의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땅을 안고 사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종족 중 하나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하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들은 공의 철학에 따라 나를 비우니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과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와 너, 나와 세계, 인간과 자연을 서로 서로 연기된 것으로 여기니 그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요, 깨달음과 자비심은 하나다. “말을 1백 마리가 진 사람이라도 채찍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이들의 속담처럼 이들은 상대방이 어린이든,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든, 장애인이든 모두를 부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보고 존중한다. 하기는, 땅 속의 지렁이도 소중한 생명체로 여겨 그를 피해 쟁기질을 하는 이들인데, 자신이 기른 가축을 죽일 때도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부처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이들인데 사람에게 대해선 오죽하겠는가?

서로가 서로를 완벽한 인격체로 대하니 이들에게 소외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개인의 이익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맞서지 않는다. 가족과 이웃에서 다른 마을 사람과 낯선 사람에 이르기까지 라다크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농사일을 더불어 하며 사유 재산도 함께 사용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짐승의 오줌과 똥을 비료와 연료로 쓸 정도로 낭비를 하지 않고 거의 완전하게 가까운 재활용을 하며 자연과 철저히 공존하는 삶을 산다. 이들은 질병이 이해의 결핍에서 생긴다며 상대방을, 자기 앞의 세계를 늘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싸려 하기에 스트레스는 없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열심히 일하면서 느슨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에,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노래를 부르며 일하기에 이들은 모두가 건강하다. 모두가 삶에 대해 충만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늘 웃음을 띤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을 16년간 관찰한 이방인 학자에게 묻는다.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 이방인 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결론을 내린다. 협동과 공생과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항상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한 라다크야말로 서구 산업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 ‘오래된 미래’라고.

라다크는 홀로 존재할 때 완벽한 공동체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라다크에마저 침투하여 라다크를 서서히 해체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대응 없이 어떤 공동체도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몇몇이 생애 공동체란 곳에서 오염되지 않은 먹을거리를 향유하며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또 야만이 아니던가? 바깥 세계가 자신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 불타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신의 공동체만은

이에서 떠나 고고한 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신비적 종교의 성채로 유지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침투 속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와 전혀 교류가 없는 공동체들을 보면 대개가 사이비 종교, 혹은 교조적 이고 광신적인 종교집단의 공동체인 경우가 많다. 다른 사회나 집단과 소통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본주의 내부로부터 그를 균열시키는 교두보 구실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자본주의를 뒤엎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19세기식 혁명은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를 그리 만만하게 보았는가? 그럼 어떻게?

### 라다크를 넘어서

미시적으로는 우선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가 소련을 해체시키고 거의 전 세계를 점령하고 승리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 체제의 모순을 모른 채 욕망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 어느 정도 아는 자들조차도 그 정도 문제는 다른 장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한다. 모순에 대한 인식이 없이 모순의 극복은 없다.

빠름에서 느림으로, 채워짐에서 비워짐으로, 욕망을 향해 달리는 삶에서 조절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욕망은 신기루다. 이르려고 하면 할수록 욕망의 완성에서 멀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욕망을 향하여 질주한다. 아직 1년에만 400만 이상의 어린이가 굶어죽는 땅에서 한껏 먹고 욕망의 포화상태에 이른 현대인들은 각종 성인병, 현대병에 시달리면서 다이어트를 하느라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비용으로 한국에서만 2조 원의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는 이 사회가 왜 건강하지 못하며 모순과 부조리에 차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포만감에 이르기 전에 손가락을 놓아야 자신의 체중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나무 우듬치에 연 과일을 까치밥으로 남겨놓았다. 이 나무, 저 나무의 까치밥을 따먹을 때 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오심을 제일 먼저 알리는 익조였고 길조였다. 그러나 농약을 뿌려 까치의 먹이가 되는 벌레가 사라지고 까치밥 또한 없애면서 까치는 가장 단맛 나는 과일만 골라 해를 입히는 해조로 변하였다. 욕망은 영원히 누구도 달성할 수 없으며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특급 호텔에서 케비아를 먹는 것보다 뒷산의 약수터로 걸어가노인들과 싸간 김밥을 나누며 푸른 하늘을 보며 사랑이 함뱍 담긴 이야기를 부부가 나눌 때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욕망을 채우려는 것보다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타인을 위하여 욕망의 여분을 남겨두는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음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패스트푸드 대신 곱삭인 음식을 대화를 하며 천천히 먹고 사랑하는 이들과 산책을 하며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더불어 10여 년 써서 낡았지만 사연과 추억이 있는 내 만년필을 수십만 원 짜리 만년필과 바꾸지 않듯 사용 가치가 교환가치보다 더 중요한 영역을 늘리는 것도, 더 나아가 사용 가치보다 존재가치를 중요시하는 것도 대안일 것이다. 물화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교환가치보다 사용 가치로 바라보며 내가 먼저 인간이 되어 다른 이들을 참다운 인간으로 대하는 것도, 그런 이들과의 만남과 연대를 늘리는 것, 연기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자본주의 원리와 다른 영역을 야금야금 만들다 보면 자본주의는 안으로부터 해체될 수도 있다.

‘나무 전략’, ‘기생 전략’, ‘잉크 전략’ 또한 대안이다. 나무 전략이란 큰 나무 옆에 아무리 조그만 나무라도 다른 나무가 자라 햇빛을 막고 영양분을 빼앗아간다면 큰 나무가 언제인가는 새로운 나무에 자리를 내주어 숲이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바뀌듯 구조 밖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구조를 교체하는 것이다. 기생 전략이란 나무 안에 들어가 나무를 안으로부터 썩게 하는 것이다. 잉크 전략이란 잉크처럼 스며들어 안으로부터 색깔을 바꾸는 것이다. 학교로 예를 들면 이곳저곳에 대안의 학교를 만들어 기존의 학교들이 창의성과 다양성의 보장과 연기적 사고를 하게 하고 민주주의와 생태적 가치, 인간적 가치들을 지향하는 교육장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나무 전략이다. 진보적 선생들이 교육부와 학교로 들어가 선생님들을 변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기생 전략이라면, 교과서, 커리큘럼을 바꾸고 나중에는 교육 구조 자체를 변하게 하는 것이 잉크 전략이다.

그러나 인드라망의 「귀농,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기획」에서 성여경 사무처장이 털어놓은 것처럼 농사를 지어서 연봉이 300여만 원밖에 안되고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은 전무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귀농 학교를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신념이 강한 몇몇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기심과 욕망이 본질인 인간에게 그것을 없애 버리고 공동체로 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나서 장관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뜸 모두 부질없는 짓이니 스님이 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심과 욕망을 발현할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융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쟁의 진속불이 패러다임 속에서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여전제(閭田制)를 응용하여 사회주의의 집단농장과 자본주의의

기업의 장점을 조화시킬 수 있다. 그는 촌락의 공동경작과 노력보수제를 조화시킨다. 그가 「전론」(田論) 제7장에서 밝힌 대로, “노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배의 후하고 박함이 결정되므로 농부는 힘을 다하고, 전지(田地)는 지리(地利)를 다하게 될 것이요, 지리를 잘 이용하면 민산(民山)이 부요(富饒)하고, 민산이 부요하면 풍속이 순후(淳厚)하고, 풍속이 순후하면 백성이 효제(孝悌)를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법은 전제(田制)의 상책(上策)이다.”

그전에 고무신을 1만 켤레 생산하는 공장이 1만 켤레를 공동 생산하고 분배하여 소련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제를 화쟁의 원리에 따라 응용해 보자. 우선 그중 5,000켤레는 공동의 몫으로 한다. 그러면 노동은 진정한 자기실현의 노동이자 타자를 자유롭게 하는 대자적 노동이니 노동이 자유이자 정의다. 그리고 그중 3,000켤레는 개인의 능력별로 나누어주어 개인의 창의력과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하여 그들의 활기찬 참여를 이끈다. 나머지 2,000켤레는 자신의 노동이 타인을 자유롭게 하였다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와 연관이 있는 주변의 장애인이나 양로원 등에 보낸다. 물론 구성원간 상호 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의 목적과 방법, 기획에서부터 분할 비율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자유 토론으로 정한다. 외적으로는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을 따라 공동체와 다른 집단을 네트워킹하고 내적으로는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원리에 따라 구성원간 상호 주체성과 상보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화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려 한다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구분 없이 나 아닌 다른 이를 자유롭게 할 때 내가 진정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세상의 삼라만상과 내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 생산에

서 소비 체제에 이르기까지 순환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없이, 환경 파괴 없이 깊은 연대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sup>1)</sup>

1) 이 글 제 3, 4장은 조계종 포교지인 『법화와 설법』에 2001년 5월 호부터 12월 호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현대사회의 위기와 대안의 패러다임으로서 화쟁사상』이란 제목으로 매달 100매 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몇 가지 부분만 발췌하였다. 더 상세한 논의는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도흠 1958년 충북 제천 출생.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현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저서로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동양 철학 에세이 - 왜 착한 사람이 더 고통받을까』, 학술논문 30여 편 등이 있다